

순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착공

복흥·쌍치 농업인 발 농업 기계화 촉진 등 경영비 줄여

순창군이 복흥과 쌍치 지역에 농업 기계임대사업소 신축에 나서면서 원거리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농업 경영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지역 농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은 6일 복흥면 담동리 일대에 권역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위

해 지난 11월 실시설계용역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최근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쌍치·복흥면 농업인들은 인근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없어 농업기계 임대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 농업인의 불편

을 해소하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18억 5천만원을 투입해 권역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새로 들어설 복흥·쌍치 임대사업소는 대지면적 6,128㎡, 창고면적 600㎡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특히 임대 농업기계 이용도가 높은 농업용 굴삭기, 퇴비살포기, 관리기 선호도가 높은 장비를 구입·비치토록 하여 많은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준공되면 파종, 정식, 수확 작업에 대한 인력 의존율이 높은 밭 경작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밭 농업 기계화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업인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임대사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촌 일손 부족 해소는 물론 농업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권역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공사 투시도.

(사진=순창군청 제공)

임실군,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 탄력

임실군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 주는 재원이다.

군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분야 2개 사업 10억원과 재난안전분야 2개 사업 10억원 등 총 4개 사업 2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현안분야 2개 사업은 △임실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5억원) △신덕면 오공리 상촌마을 진입로 확장공사(5억원)이며, 재난안전분야 2개 사업은 △임실 우두소하천 정비사업(7억원) △삼계 송전소교량 정비사업(3억원)이다.

임실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실내체육관과 수중운동실 등 장애인 전용 체육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물리치료시설 및 언어치료시설 등 각종 장애인 지원시설까지 갖추으로써 임실군 장애인들에게 고품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덕면 오공리 상촌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는 협소한 마을 길을 확장 후 포장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좁은 진입로로 인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한층 개선된 정주 여건

을 제공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군은 임실을 두꺼리 우두소하천과 삼계면 학정리 송전소교량 등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영농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심 민 군수를 필두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심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은 행정안전부에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등 교부세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심 민 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군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춘향장학재단, 제78차 이사회 개최

남원 춘향장학재단(이사장 최경식)은 6일 오전 10시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78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3년 사업추진 계획과 2024년 교육지원사업

및 예산편성, 임원 선출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춘향장학재단은 95년도에 설립되어 28년 동안, 남원시 우수 인재 양성과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

원, "남원의 별" 특별장학금 지급, 으뜸 인재 육성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경식 이사장은 "춘향장학재단을 통해 훌륭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남원의 명예를 드높여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6일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남원시의 미래를 그리기 위한 2040 남원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남원시, 종합계획 시민공청회 개최

2040년 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 등 내년부터 본격 추진

남원시는 6일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남원시의 미래를 그리기 위한 2040 남원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으며, 2040 남원시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작년 11월부터 추진 중이며 12월 중 최종 마무리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창조 등 4개 추진전략 70개 핵심 사업을 설명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민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일자리와 경제·복지가 누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지리산권 중심 도시로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2040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했다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샤인머스켓 베트남에 첫 수출

남원시 대표 농산물 중 하나인 샤인머스켓 포도가 지난 5일 베트남에 첫 수출했다.

이번 수출은 운봉농협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공동 선별한 440박스, 물량은 적지만 운봉 고랭지 포도가 해외로 처음 수출해 의미가 크다.

운봉 샤인머스켓은 해발 500m의 고랭지에서 생산되어 여름철에 비교적 서늘하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높은 당도와 뛰어난 향을 자랑하고 있으며, 그동안 내수시장인 광양원에농협 로컬푸드와 롯데마트 등으로 납품하고 있다.

특히 운봉 샤인머스켓은 2021년부터



지리산농협을 통해 해외 진출을 시작했으며, 이번에 운봉농협에서도 해외 진출을 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남원의 대표품목으로 성장하게 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모범음식점 지정 안전 먹거리 마련

순창군은 6일 지역 내 위생관리가 우수하고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 문화개선에 앞장서는 18곳의 모범음식점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지정음식은 순창맛이레(순창읍), 모아식당(순창읍), 순창맛집(순창읍) 3곳으로 음식문화 개선 이행여부, 위생상태·서비스·맛 평가,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정부정책 기여도 등 25가지 항목에 대해 현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또한 기존 15곳의 모범음식점도 심사를 통해 재지정돼 순창을 대표하는 모범음식점으로 운영된다.

군은 모범음식점에 대해 △모범음식점 표지판 배부 △지정 후 2년간 위생점검 출입·검사 면제 △상하수도 요금 20%감면 △위생용품 지원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시 우선 지원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평생교육 '어반 스케치 반' 작품 전시회

순창군이 6일 평생교육 프로그램 '어반스케치반'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어반스케치 반' 수강생들이 학습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순창 베르자드방과 페 갤러리 2층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모두 어반스케치를 수강한 학생들로, 12회에 걸친 강의를 통해 배운 실력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총 30여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특히, 군은 어반스케치 수업 외에도 각 프로그램마다 수업의 특성을 살려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배움을 실천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관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